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V.I.P 신흥시장 소개 - 필리핀 경제 및 산업 동향

경제 이슈: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결정한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슈: 위험관리와 보험 - 보험의 이해와 보험기관

세심록

기술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 진정한 인간관계

Book Review

어제까지의 세계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8월 취업자 증가 11개월만에 최대 기록

-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3만명 늘어나 2012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고용 여건은 완만히 개선
 - 고용지표: 신규 취업자 40만명대 증가 이외에도 고용률이 60.0%로 전년동월대비 0.3%p 개선되었고, 실업률도 3.0%로 안정세를 나타냄
 - 고용 회복의 원인: 민간부문 고용의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지만 추경 일자리 사업과 여름 휴가철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크고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민간 부분의 고용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개선은 제약될 것으로 보임

○ 금융 동향: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금융시장은 트리플 강세

- 아시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국내외 투자자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트리플 강세를 나타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월 29일 2.93%에서 9월 16일 현재 2.89%로 0.04%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8월 29일 1,109.7원에서 9월 16일 현재 1,080.5원으로 29.2원 하락
 -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 투자자의 17일 연속 매수세와 국내 기관투자자의 매수 확대 등으로 8월 29일 1,907.5에서 9월 16일 2,013.4로 105.9p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2/4	8/29	9/16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2.8	2.4	1.5	1.5	1.5 ^p	2.3	-	-
	산업생산(%)	7.2	4.2	1.5	0.3	1.2	-1.8	-0.9	0.8	-
	소비자물가(%)	4.2	3.0	2.4	2.4	1.7	1.4	1.1	1.4	1.3
	실업률(%)	3.4	3.8	3.3	3.0	2.8	3.6	3.1	3.1	3.0
	경상수지(억달러)	54.9	25.6	111.4	145.6	149.4	100.2	198.0	67.7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5	3.39	2.88	2.81	2.68	2.67	2.93	2.89
	원/달러(원)	1,083.2	1,131.3	1,152.1	1,132.9	1,090.3	1,084.8	1,122.8	1,109.7	1,080.5
	코스피지수(P)	2,100.7	2,014.0	1,854.0	1,900.5	1,997.1	2,004.9	1,863.3	1,907.5	2,013.4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8월 29일은 7월, 9월 16일은 8월 수치임.

□ 산업 이슈: V.I.P¹ 신흥시장 소개

- 필리핀 경제 및 산업 동향

○ 국가 개요

-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7,000여 개의 섬들로 구성된 도서(島嶼) 국가
 - 아세안 소속 10 개국 중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경제와 인구 규모가 큰 국가
- 정국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베니그노 아키노가 대통령으로 당선(2010년)된 이후 정국이 안정화되고 있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부정부패 청산, 빈부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 중

○ 경제 및 산업 동향

-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 유지
 -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외근로자 송금으로 만회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해외로부터 대규모의 자본유입을 통한 투자확대 지속
- (산업)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제조업 경쟁력은 주변국에 비해 취약
 - 한편 필리핀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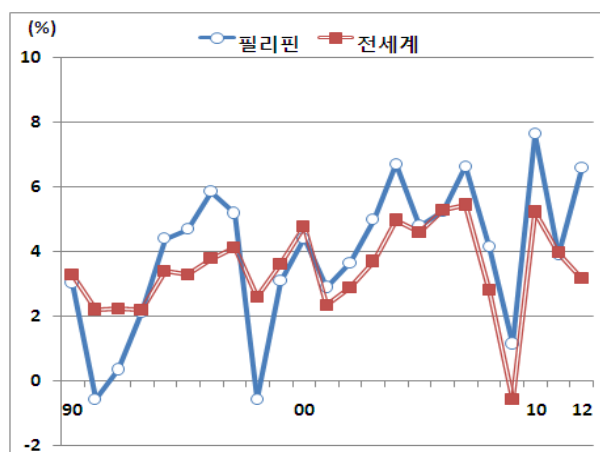
< 국가 개요 >

면적	300 천 km2(한반도의 1.3 배)
수도	마닐라(1,150 만명)
인구	1 억 572 만명(세계 12 위)
민족	말레이족, 네그리토족, 인도네시아족 등
종교	가톨릭(83%), 기독교(12%), 이슬람교(5%)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언어	타갈로그어, 영어, 기타 지방어
통화단위	페소(Peso)
환율	41.12 페소/달러 (연평균)
GDP	2,504 억 달러(한국의 21%)
1인당 GDP	2,614 달러(구매력기준 4,500 달러)

자료: CIA, 수출입은행, IMF, KOTRA.

주: 2012년 기준(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11년 기준).

<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



1 2011년 11월 일본의 경제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는 주목할 만한 신흥국으로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Philippines)을 언급하며 앞 글자를 따서 VIP 시장이라 명명함.

○ 필리핀 경제의 성장 동력 및 잠재 위험

- (성장 동력) 중산층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풍부한 부존자원
 - 연소득 3,000 달러 이상의 중산층은 2009 년 2,030 만 명에서 연평균 23.8%씩 성장하여 2014년에는 4,770 만 명에 이를 전망
 -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2 대 광물자원 부국이고, 필리핀 정부는 광물자원 매장가치를 8,400~10,000 억 달러 규모로 추산
- (잠재 위험) 열악한 인프라 수준이 필리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
 - 필리핀의 인프라 수준은 도로·항만·전기 등 전부분에 걸쳐 세계 평균을 하회하고,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경쟁력
 - 높은 전기료와 도로망 부실 등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 필리핀 제조업이 취약한 대표적인 이유로 지적

□ 경제 이슈: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결정한다!

- 美·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시사점²

○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속 美·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 가속

- 한국 제조업의 위상이 정체되면서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비중과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되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2010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반해, 여전히 세계 최고 경쟁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오바마노믹스,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국가차원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미국은 법인세 개편, 제조업 혁신 연구소 설립, 에너지 개발에 따른 연관 제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중심으로, 일본은 6대 산업재흥전략과 법인세율 개편을 중심으로 제조업 발전의 기반을 확립해 나갈 전망이다.

○ 韓美日 제조업 경쟁력 비교

- 요소투입, 가격 경쟁력, 제조업 생산성, 기술 경쟁력, 사업 환경 등 크게 5개 부문을 대상으로 韓美日 제조업 경쟁력 요소들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뛰어난 부문도 있는 반면, 악화되거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여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 첫째, 요소투입 부문에서 한국은 최근 제조업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미국과 일본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과 일본의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순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둘째, 가격경쟁력에서는 한국의 시간당 임금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가장 높아 가격경쟁력 약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화와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최근 한국의 대내외가격차도 상승하면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2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3-38호, 2013. 9. 6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결정한다!” 을 요약 정리.

약화되었다. 셋째, 생산성 부문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이 가장 높지만,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011년 들어 미국이 한국을 역전했고, 일본은 2012년 4/4분기부터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넷째, 과학기술 경쟁력에서도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와 수출액 대비 중·고 기술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전반적인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 기술무역 수지비, 삼극특허건수, 對 OECD R&D 집중 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등에서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다섯째, 사업 환경에서는 규제, 노동시장, 인프라의 지표들 중 한국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부문도 있으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어 한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종합평가 및 시사점

- 향후, 미국과 일본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하락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가격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 안정성 확보 방안과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확대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경쟁력 제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 일본의 보호무역주의 초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주요국들의 성공사례 활용이 필요하다.

정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 이슈: 위험관리와 보험 - 보험의 이해와 보험기관

□ 요약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때도 많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위험 등은 개인과 가계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나아가 가족 전체의 삶을 위협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직면한 위험 노출도 확인하고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보험은 사망, 장애, 질병, 화재, 자동차사고 등과 같이 규모나 빈도가 높은 위험으로 발생할 손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위험관리 방법으로 위험의 이전을 통해 개인이 재정적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 일반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여기서는 개인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의 개념과 보험기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보험이란

○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때도 많음

- 조기사망, 장기생존, 질병, 상해 등의 인적 위험, 재산 손해와 같은 재산 위험, 그리고 배상책임 위험 등이 그것임
-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나 위험 등은 개인과 가계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나아가 가족 전체의 삶을 위협
- 따라서 우리에게 직면한 위험 노출도 확인하고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마냥 피하거나 줄일 수 없는 위험도 많다. 그렇다고 위험을 그대로 보유할 수는 없음, 이럴 경우 우리는 보험을 이용하여 위험을 이전시킬 수 있음

○ **보험은 사망, 장애, 질병, 화재, 자동차사고 등과 같이 규모나 빈도가 높은 위험으로**

발생할 손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위험관리 방법

- 보다 구체적으로 보험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서 준비금을 마련한 다음, 구성원 중 일부가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보상하여 주는 경제적 제도
- 개인의 입장에서는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을 통하여 다수에게 이전하거나 분산시켜서 개인의 인적·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 일반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음

- 실제로 한국전쟁 이후 부족한 산업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험을 계와 비슷한 개념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저축수단에 가까운 역할을 해왔음
- 만성적인 물가상승이나 금리 불안정 등으로 단기 저축성상품에 대한 선호의식이 팽배했고, 일반인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으며, 보험모집인의 전문성이 또한 결여되었기 때문임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은 만기 환급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목돈마련상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음
- 최근 보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
 - 특히 외국의 보험회사들과 국내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보장성기능을 강조되면서 본래 의미의 보험기능을 되찾고 있음

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 보험은 크게 국가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띤 사회보험과 개인들이 사사로이 선택할 수 있는 민영보험으로 구분

- 먼저 사회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 사망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해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임
-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보장 수준은 사회적으로 최저수준임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으로는 보통 직장을 다닐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 대보험'이 그것이었는데, 2008 년 8 월 이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추가되어 이제는 '5 대보험'이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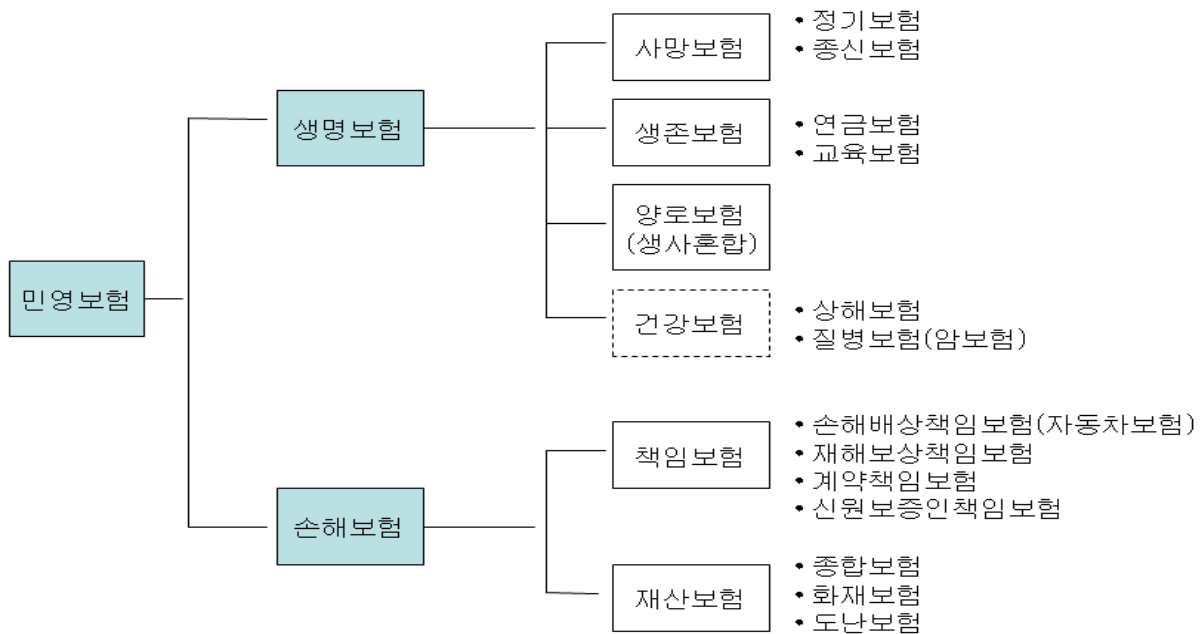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

	사회보험(공적보험)	민영보험(사적보험)
가입 형태	의무 가입	임의 가입 (선택적 가입)
운영 취지	사회적 형평성	개인별 적정성
운영 주체	정부 (독점적 운영)	민간 기업 (경쟁시장)
보장 수준	사회적 최저수준 (보험혜택이 보험료와 정비례하지 않음)	보험료 수준에 따라 증감
보험금 지급	법률로 결정	계약에 따라 결정
종류	(5 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 한편 민영보험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됨

- 생명보험(대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고, 손해보험(재산 및 배상책임 보험, 대물보험)은 물건이나 재산에 사고가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임
- 국내 보험업계 전체의 보험료 수입 중 생명보험이 약 70%, 손해보험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생명보험임

< 민영보험의 구조 >



3.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 생명보험은 크게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으로 구분됨

-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임
- 원칙적으로 보험 만료일까지 살아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는 보장성 보험으로서, 보험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진 정기보험과 피보험자의 평생을 보장해 주는 종신보험으로 구분됨

- 사망보험은 생명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보험이나 양로보험에 밀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했으나 최근 사망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크게 활기를 띠고 있음
-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기간 동안 살아있어야만 만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임
 - 저축성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음
 - 생명보험 중에는 연금보험과 교육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일정기간(중신도 가능) 동안 해마다 일정액씩 지급하는 보험이며 교육보험은 보험가입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인 자녀에게 학자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녀가 사망하면 계약은 소멸되고 그동안 납입보험료는 반납되는 보험임
- 양로보험이라고도 하는 생사혼합보험은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보험
 - 보장성과 저축성을 다 가져야 하므로 보통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생사혼합보험은 생존해도 보험금을 타고 사망해도 보험금을 타는 것으로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고 저축부분에 대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저축이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다른 저축상품을 이용하고 보험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 한편 이름만 보면 생명보험인 것 같은 건강보험이 있음
 - 건강보험은 건강관리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원칙적으로 생명보험 상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로 생명보험회사에 의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음
 - 건강관련 위험에는 상해·질병 등이 있으며, 건강의 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는 의료비 지출과 소득의 상실이 있음

- 건강보험 중 상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신체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한 상품이며, 질병보험은 특정 질병을 앓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보험이다. 대표적인 질병보험으로는 암보험을 들 수 있음

○ 한편 손해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재산보험 등이 있음

-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돈을 물어 주어야 할 때를 위한 보험인데, 손해배상 책임보험, 재해보상 책임보험, 계약 책임보험, 신원보증인 책임보험 등이 있으며 이중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가장 대표적
- 재산보험이란 재난이나 화재, 도난 등과 같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임, 이에선 종합보험, 화재보험, 도난보험 등이 있음

○ 최근 변액(變額)보험이 저금리 상황에서 재테크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음

- 변액보험은 가입할 때 이미 받게 될 보험금이 정액보험과는 달리,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보험임
- 즉,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얻는 수익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으로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어디에나 해당될 수 있음
- 변액 보험은 전문 설계사의 역량과 보험사의 마케팅 능력과 직결되어 있음, 운용 여하에 따라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휴지조각이 되어 버릴 수도 있음
-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음

4. 국내 민영보험기관

○ 보험이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손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회피하는 금융적 방법이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보험회사로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등으로 구분됨

- 생명보험회사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임

- 생명보험회사는 주로 보험료 수입의 적립금인 보험계약준비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유가증권투자 및 대출 등으로 운용함, 생명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됨
- 그리고 손해보험회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에 사고가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임
-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재보험회사도 있음. 비행기 폭파사고 등과 같이 사고 규모가 매우 클 때 한 회사가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손해보험회사는 다시 보험을 드는데 이를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재보험기관으로는 세계적으로 로이드(Lloyd) 등이 유명. 우리나라의 재보험기관으로는 코리안리(KoreanRe)가 있음
- 한편 그 밖에 보증보험과 우체국 보험 등이 있음
 -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음
 - 우체국보험은 생명보험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하는 1인당 계약보험의 한도는 현재 4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음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덕배(02-2072-6216, dbpark@hri.co.kr)

□ 洗心錄

□ 기술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 진정한 인간관계

인터넷과 스마트 폰이 일상의 당연한 수단이 되면서 생활은 말할 수 없이 편리해지고 있다. 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스마트폰이 없어도 사는 데 전혀 지장 없었고, 삼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터넷이 없어도 역시 삶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말을 이해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는 전(前) 인터넷 시대에 태어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특히 SNS가 가져온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인간관계의 확장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SNS시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편리와 새로움이 항상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주장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2013년 8월 14일 세계적 권위의 온라인 과학저널인 PLOS One을 통해 발표한 “Facebook Use Predicts Declin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Young Adults”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벨기에 루벤대학교의 Philippe Verduyn 등은 매일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가늠해보고자 했다. 그들은 80명의 젊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14일 동안 실험을 진행했다. 이들에게 매일 무작위로 5차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그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난번 메시지를 보낸 후 얼마나 페이스북 북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는지 등의 질문을 포함한 설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답하도록 했다. 결과는 평균적으로 사용자들이 이전보다 더 우울해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분명 인간관계의 확대가 가져오는 장점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이유로 연구자들은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자 했다. 하나는 사회적인 상호관계 수립이나 유지가 필요하지만 꼭 즐거운 일은 아닐지 모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우울한 기분을 전환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가설에 대해 뚜렷한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다. 곧,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이 피곤할 수 있지만 우울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고 페이스북을 우울한 기분을 돌리려고 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 것은

페이스북이 유력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지만 그 이유는 밝혀내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SNS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자세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것은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올릴 경우 거의 긍정적인 내용만 올리고 이에 따라 이를 읽거나 반응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처지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자신의 삶이 친구들이나 사회적인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연구자들은 이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만약 알건 모르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행복해 보일 때 자신이 불행하다고 조금이라도 느낀 적이 있다면 심분 공감할 수 있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백만장자에게는 백만 가지의 고민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더 많은 소유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더 많은 번뇌를 지적해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말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행복의 크기가 클수록 그만큼 그 그림자 또한 짙고 길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돌아보면 좋은 인간관계는 상대의 좋은 점 때문만이 아니고 상대의 나쁜 점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친구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다른 면을 보고 실망하기도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의도한 좋은 점만이 보여지는 SNS를 통해 만들어진 인간관계가 더 넓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이전과 같은 무엇보다 행복한 느낌을 주는 인간관계로 연결되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상대와 내가 만나 직접 “face-to-face” 곧, 대면하는 인간관계를 글자대로라면 “얼굴을 기록한 책” 정도로 해석 가능한 페이스 북(Face book)은 결코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직장에서 퇴근한 뒤에 하는 일은
당신이 직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지그 지글러 : 미국의 성공 철학자

□ Book Review

- **제목: 어제까지의 세계**

- 비교적 최근까지 존재해온 전통사회(무리 사회, 부족 사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 사회로부터 배울 내용들을 사법제도, 양육법, 노인에 대한 대우, 분쟁 해결 방법, 위험관리, 다중언어 사용, 건강한 생활방식 등으로 나누어 정리, 제안

-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Jared Diamond)**

- 1937년생, 美 캠브리지대 생리학 박사
- 현 UCLA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중
- 1998년 대표 저서 <<총, 균, 쇠>>로 풀리처 상 수상
- 주요 저서 : <<총, 균, 쇠>>, <<문명의 붕괴>>, <<제 3의 침팬지>>, <<섹스의 진화>> 등

○ 주요 내용

- (존재 방식) 전통사회에서 각 부족은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외부인이 공간을 드나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자유로운 여행이 불가능
 - 각 부족은 강둑이나 관개수로처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자원을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핵심적인 영역을 수호
 - 다른 집단의 구성원은 친구, 적, 이방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분쟁 해결) 전통사회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감정의 화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나, 이것이 실패하면 대부분 폭력으로 치달음
 - 전통사회와 달리 국가사회는 잘못에 대한 징벌, 원상 회복, 범죄의 억제 등이 주된 목적이며, 피해자 및 범죄자와 그 가족의 희망 등은 고려되지 않음
 - 전통 사회 분쟁 해결 방식에 의한 대안적 사법 시스템: 중재자의 역할 강화, 회복적 사법
- (양육) 전통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적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면, 일부 현대 국가에서는 기초적인 사회적 삶까지도 노골적인 교육이 필요

- 전통사회에서는 잦은 수유와 긴 수유 기간, 잦은 신체 접촉, 많은 대리 부모의 추가적 보호와 사회적 본보기들, 울음에 대한 즉각적이고 일관된 반응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
 - 특히 놀이와 교육의 일치를 통해 사회적 삶에 대한 자연스럽게도 훌륭한 교육이 가능
- **(노인)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한편으로는 방치, 유기, 살인의 대상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과 정보의 저장고로서 공경의 대상**
- 현대 사회의 노인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과거 사회에서 제공하던 효용성을 상실하며 육체적으로는 더 건강해졌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빈곤한 상태
 - 조부모로서의 역할을 되살리고 노인들의 강점을 살리는 방법 등을 도모할 필요
- **(위험과 대처) 전통사회에서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으로서 '건설적인 편집증'은 현대 사회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재평가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전통사회의 환경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지 않으려면 지나칠 만큼 조심스러운 편집증이 반드시 필요
 - 확률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사건이라도 횟수가 반복되면 사고의 확률은 높아지는 만큼 매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함
 - 현대사회에서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 자동차, 술, 사다리, 샤워실에서 (테러리스트나 핵원자로, 항공기 추락이 아니라) 건설적 편집증을 발휘할 필요
- **(언어) 언어의 다양성과 다중 언어의 사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어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필요**
- 전통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적어도 5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다중 언어 사용자였으며, 다중 언어 사용은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를 예방
 - 그러나 현대사회는 세계 7,000여개 언어 중 '빅 나인' 언어 사용자가 세계 인구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며 세계 곳곳에서 언어 압살로 많은 언어가 사라지고 있음
 - 언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복잡한 작품이며, 언어를 상실하면 그 언어로 표현된 문학과 문화와 지식 모두를 상실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영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영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